농촌진흥청	보 도 자 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	
보도 일시	화요일 11:00 (1. 25.(수) 조간)	배포 일시	2023. 1. 20.(금) 16:00
담당 부서	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	책임자	과 장 이동혁 (054-380-3102)
		담당자	연구사 이영석 (054-380-3156)

올해 사과 꽃눈 분화율 낮아 가지치기 전 확인 필수

- 눈 채취 후 꽃눈 비율 60% 이하일 땐 열매가지 많이 남겨야 -

농촌진흥청(청장 조재호)은 올해 사과 주 생산지의 꽃눈 분화율을 조사한 결과, 평년보다 분화율이 낮고 관측지점 사이의 편차가 커 가지치기 전 반드시 과수원의 꽃눈 분화율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.

꽃눈 분화율은 사과나무 눈 가운데 열매가 될 수 있는 눈, 즉 꽃눈이 형성된 비율로 가지치기 작업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.

꽃눈 분화율이 낮을 때 가지치기를 많이 하면 좋은 위치에 열매가 달리지 않고 열매양이 줄어 수량 확보가 어려워진다. 반면, 꽃눈 분화율이 높을 때 가지치기를 적게 하면 초기 자라는(생장) 데 많은 양분을 소모하게 되고 열매를 솎는 데 많은 노동력이 든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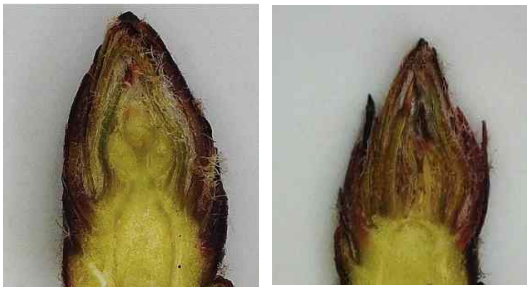
농촌진흥청 사과연구소가 올해 1월 2일부터 6일까지 경북과 경남, 전북, 충북의 사과 주 생산지 6곳, 9농가*를 대상으로 꽃눈 분화율을 조사한 결과, '홍로'의 꽃눈 분화율은 64%로 평년보다 4.0% 낮았고, '후지'의 꽃눈 분화율은 56%로 평년보다 5.2% 낮게 나타났다**.

* 경북 군위·영주·청송, 경남 거창, 전북 장수, 충북 충주

** 평년(2013~2022, 10년) 꽃눈 분화율: 홍로 68%, 후지 61%

다만, 과수원마다 '홍로'는 낮게는 40%에서 높게는 81%, '후지'는 낮게는 34%에서 높게는 80%까지 편차가 크게 나타난 만큼 농가에서는 반드시 가지치기 전 꽃눈 분화율을 확인해야 한다.

꽃눈 분화율은 생장이 중간 정도인 나무를 선택한 뒤, 동서남북 방향에서 성인 눈높이에 있는 열매가지(결과모지) 눈을 50~100개 정도 채취해 확인한다. 가지에 부착된 눈을 떼 내 날카로운 칼로 세로로 이등분한 후 확대경을 이용해 꽃눈인지 잎눈인지를 보면 된다.



꽃눈 잎눈

꽃눈 분화율이 60% 이하라면 열매가지를 많이 남기고, 60~65% 정도일 때는 평년처럼 가지치기한다. 65% 이상이면 평년보다 가지치기를 많이 해 불필요한 꽃눈을 제거하면 된다.

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 이동혁 소장은 “한 해 사과 과수원 관리의 첫걸음인 겨울 가지치기를 제대로 해야만 품질 좋은 사과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.”라며 “반드시 과수원 꽃눈 분화율을 확인한 뒤 가지치기에 나서 달라.”라고 강조했다.

붙임. 사과 주산지 꽃눈 분화율 조사 결과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# 사과 주산지 꽃눈분화율 조사 결과

<그림1> 꽃눈과 잎눈 구별 모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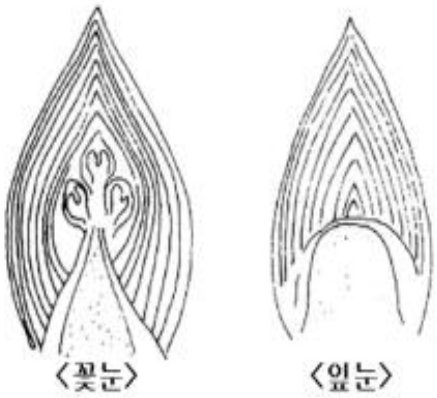
○ 눈 절단면이 꽃눈(왼쪽)인지, 잎눈인지 확인하면 됨



꽃눈



잎눈



□ 꽃눈분화율 조사 결과

○ <표1> 홍로

구분	평균	관측지점					
		A	B	C	D	E	F
2023년	64	56	40	81	73	60	75
2022년	73	78	73	67	80	62	78
평년	68	64	70	65	63	73	72
전년대비(%)	-12.1	-28.2	-45.2	20.9	-8.8	-3.2	-3.8
평년대비(%)	-5.6	-12.5	-42.9	24.6	15.9	-17.8	4.2

○ <표2> 후지

구분	평균	관측지점					
		A	B	C	D	E	F
2023년	56	35	34	71	65	50	80
2022년	59	65	60	62	63	34	72
평년	61	58	63	56	67	64	62
전년대비(%)	-5.9	-46.2	-43.3	14.5	3.2	47.1	11.1
평년대비(%)	-8.5	-39.7	-46.0	26.8	-3.0	-21.9	29.0

* 평년 2013.~2022, C,D,E 지점은 2농가